

심민군수 “입기 다 채워 감회 커”

민선 6기 마지막 청원조회... 국비 확보, 영농철 대비 각종사업 마무리

임실군이 민선 6기의 사실상 마지막 청원조회를 갖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다짐했다.
2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청원조회에는 심민군수를 비롯, 실과원소장, 읍면장 및 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선 6기의 마지막 청원조회에 나선 심민군수는 “지난 4년 전 취임할 때가 옛것과 같은데 어느새 입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며 “4년전 많은 군민들이 입기를 채우는 군수가 되어 달라 하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입기를 거의 다 채워서 감회가 크고,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청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군수는 이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 상호간의 소통과 배려라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간에 소통이 잘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 줄 것과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대책, 재난재해사고예방을 비롯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배수로 사업 등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당부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18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가 축제의 주인이다’는 책임감을 갖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심군수는 “최근 임실N치즈를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임실N치즈도 5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임실N치즈가 무한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명성을 다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애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청원조회에서는 지난 16일 강원도 주먹화재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한 전배원들에게 감사패를, 모범이자, 새마을부녀회 및 생활개선회 우수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청원조회 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기본 자세 및 친절교육’이란 주제로 민원응대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분홍빛 고운 철쭉 만개

오늘 흥부골 봉화산 철쭉제 개최

흥부의 고장으로 유명한 아영면에서 3일 진분홍빛 새색시의 한복처럼 곱디고운 철쭉 옷으로 갈아입은 봉화산에서 제23회 흥부골 봉화산 철쭉제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한다.
봉화산(919.8m) 철쭉 군화(群花)는 황홀경 그 자체이다. 50ha 아취형 집단 군락지를 이루고, 하단부 500m부터 정상 900m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개화를 한다. 수고가 2m 이상으로 사람 키를 훌쩍 넘어 철쭉터널을 지나다보면 어느덧 진분홍빛 색감에 매료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또한 봉화산은 삼국시대 때부터 백제, 전봉가야, 신라와 치열하게 국경을 형성했던 곳으로 지난해 산재되어 있던 전봉가야의 기백을 잇고자 ‘전봉가야 선포식’을 열고 ‘전봉가야 탐’ 세운 장소로 가야시대 봉화대의 철기유적을 엿볼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지역이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천우 흥부골아영면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은 “봉화산은 아름다운 철쭉 군락지와 함께 등산로도 완만하게 정비되어 있어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많은 분들과 함께 봄의 향취를 나누고 싶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홍승채 순창군수 예비후보 개소식

민주평화당 홍승채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 가졌다가 지난 1일 밝혔다.



홍승채 예비후보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 대표를 필두로 국회 홍승채 예비후보 의원 김중회 전북도 당 위원장, 김광수 국회의원, 상임선대 본부장 김경진 국회의원, 김중회 국회의원, 임정업 전 원주군수, 정동영 국회의원, 임정업 전 원주군수, 정동영 국회의원, 임정업 전 원주군수, 정동영 국회의원의 부인 민혜경 여사, 이 지역 어르신 양성화 회장과 군장대 석좌교수 나국현 (전 교육위원), 정진숙 사무처장 및 관계 내빈 등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치러졌다.

김중회 전북도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홍승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정동영 의원에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며 “비록 지금은 세가 약하지만 뜻을 모치다면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동영 국회의원 부인인 민혜경 여사는 “정동영의원의 불참에 대해 설명했었고 ‘홍승채 후보는 형수라고 호칭하고 저는 동생이라고 호칭하’며 “정동영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친분이 두텁다고 말하면서 순창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사업장 산업재해 ‘0%’ 도전

찾아가는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남원시가 올해 사업장 재해 발생률 0%에 도전한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3일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

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체적인 ‘산재 예방활동 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면 1년간 산재보험요율 10%를, 위험성 평가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매년 20%씩 인하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한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이론 강의와 산재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병행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남원시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사업주들이 타 지역에 있는 교육장을 찾는 번거로움도 없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각종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단독주택 소형태양광 설치

1억 2261만원 사업비 확보... 1차 51가구 이달부터 시공

순창군이 올해 총 61가구를 선정해 단독주택 소형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군민들의 에너지 사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이 사업에 국도비 등 1억 226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소형 태양광은 설치 용량이 1kW로 월 전기 소비량이 200kWh이하면 가

구에 적합한 태양광으로 설치비는 총 250만원이다. 군은 2018년도를 보조 지원하며 나머지 40만원은 자부담이다. 특히 이번 소형태양광설치 사업은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그동안 소형태양광 설치사업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2개 업체가 최종 접수함에 따라 자격을 심사한

후 읍면별 대상 농가를 배분해 이달 사업을 착수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사전 희망자를 접수받아 올해 가구주의 설치 의사를 재확인 해 1차로 51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잔여 10가구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읍면 산업계에 서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효율화로 각 가정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면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민선6기 전국공약이행평가

황숙주 순창군수 ‘공약대상’ 수상

국회 헌정기념관서 시상식

황숙주 순창군수가 ‘민선 6기 전국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단체장으로 다시한번 이름을 올렸다.

2일 순창군에 따르면 ‘민선 6기 전국단체장 공약이행평가회 및 시상식’은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 의원)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연맹은 앞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을 상근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송상공인, 대학생, 청년연합 회원 등 연인원 4천5백여명이 5~8회씩 교차 평가하는 방식으로 4년 전 선거당시의 공약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이번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황숙주 군수는 2014년에도 민선5기 공약이행률 도내 1위로 공약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2기 연속 공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순창군은 방재터널과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등 규모가 크고 굵직한 공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완료형 공약이 선거당시 공약의 61.7%로 높게 나타나 합리적이고 지역실정에 맞



황숙주 군수

는 약속과 그에 따른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문화, 행정, 복지, 농업, 경제 등 8개 분야 공약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발전을 이끈

점도 인정 받았다. 군은 특히, 공약이행에 대한 재원확보 및 군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선6기 동안 총 3,463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왔다. 이와 관련 시상식은 2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및 민선 6기 공약이행평가 관련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국단체장들의 공약이행 평가의지를 다지고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수상은 모두 우리 군민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의 고견을 수렴해 순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간담회

임실군은 2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함께 모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예방 및 홍보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말 제1회 임실군 민선6기 민선6기 읍·면 협의체 위원이 재구성되어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지역의 복지이장 등 인적 안전망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지역보호의 공동체’로서 역량을 펼칠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

군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찾아주세요. 따뜻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홍보용 리플릿 5,000매를 제작 각 읍·면 협의체에 배부하고 마을주민, 경로당, 유관기관 및 상가 등과 읍·면 민원실에도 배부 및 비치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예방을 위하여 각 협의체에서 발굴·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